

애정갈등형 소설의 구조와 그 의미

이 미 향*

차 례

- | | |
|---------------------------------|----------------------|
| 1. 서 론 | 3. 애정의 삼각갈등구조 - 『재생』 |
| 2. 혼사장애구조의 변용
- 『추월색』과 『장한몽』 | 4. 삼각갈등의 중점구조 |
| | 5. 결 론 |

1. 서 론

이성간의 애정이 중심 갈등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고소설의 애정소설부터이다. 정치적 갈등을 중심 서사로 삼는 영웅소설이나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소설과는 달리 애정갈등형 고소설은 애정성취라는 개인의 욕망과 국가적, 가족적 질서와의 갈등을 주갈등으로 삼는 소설이라 하겠다. 애정갈등형 고소설은 봉건질서에 대한 비판과 개인 욕망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영웅소설이나 가정소설보다 근대적 장르라 할 수 있다. 또한 애정갈등형 소설은 봉건 윤리에 속박을 당하던 여성의 일탈 욕구와 여성들의 여가 증대 등의 요인에 의해 소설의 주 독자층을 형성한 여성 독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대중소설이다.

애정갈등형 소설은 18세기에 등장할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생산되어 왔으며, 대중소설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렇게 한국소설의 한 갈래를 차지하고 있는 의미있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소설 유형 중 고소설만이 본격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 또한 영웅소설이나 가정소설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더욱이 애정갈등형 근대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애정갈등형 소설은 애정소설, 연애소설 등과 같이 다른 명칭으로 칭해지고, 각각 다른 갈래의 작품으로 연구되고 있어서 고소설, 신소설, 근대소설 등을 연계선상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애정소설이나 연애소설은 각각 고소설과 근대소설만을 염두에 두고 개념 규정된 용어이므로 어느 하나를 통일된 장르의 명칭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애정소설 혹은 연애소설이 소설의 하위장르로 성립될 수 있는지도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고, 고전소설의 장르와 근대소설장르의 차이도 밝혀져야 할 과제이므로 선부르게 장르 명칭을 선택하기보다는 애정갈등형 소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애정갈등이 중심서사가 되는 소설이라는 점이 고소설(애정소설)과 근대소설(연애소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특징이므로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이란 명칭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애정갈등형 소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남녀의 결합문제가 애정 당사자들의 사적인 문제이면서도, 그것의 갈등구조와 성취여부가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속에서 결정된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애정갈등형 고소설은 통치이념인 유교이념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중세의 쇠퇴기에 발생하여 중세질서에 문제제기를 하는 작품이다. 고소설은 젊은 남녀가 당사자의 애정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합하였다가 시련을 겪은 후 애정이 성취되는 소설로, 만남-시련-애정 성취라는 서사구조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대중소설은 인기있는 소설의 문학형식을 반복한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고소설 이후의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은 모두 고소설의 혼사장애구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이 상업성을 위해 관습적 문학형식¹⁾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시대와

1) 관습적인 문학형식을 반복하는 것을 '도식성(formula)' 또는 '토포스(topos)'라고 한다. 이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일련의 패턴들'로 "수사학적인 상투문구, 자주

이념에 따라 애정갈등형 고소설의 관습을 변용하기도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공식성 혹은 도식성은 그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꿈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공동체적 문화산물이다.²⁾ 따라서 공동체의 성격이 변화되면 관습적 문학형식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중소설은 사회적 이념을 즉, 당대 대중의 취향이나 생각을 가장 빨리 파악하여 그것을 이야기하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애정갈등형 대중소설도 관습적 문학형식을 반복한 작품보다 이를 변용한 작품이 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이러한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애정갈등형 신소설과 근대소설이 애정갈등형 고소설의 애정갈등인 혼사장애구조를 어떻게 변용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시대의 애정갈등형 소설이 당대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의 갈등구조의 변모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애정갈등형 소설 모두 대상 작품으로 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추월색』³⁾, 『장한몽』⁴⁾, 『재생』⁵⁾, 『절레꽃』⁶⁾ 등을 대상 작품으로 하였다. 신소설 중에는 『추월색』뿐만 아니라 이해조의 『원앙도』(1909), 『화세계』(1911), 최찬식의 『금강문』(1912) 등이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에 해당된다. 이 중 『추월색』을 선정한

쓰이는 문학적 상황이나 주제” 등을 의미한다. 도식성이나 토포스는 과거로부터 길들여진 체험이 독자의 내부에 형성해 놓은 기대지평에 만족을 주어 독자들에게 만족감과 안도감을 준다.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역, 『대중의 수퍼맨』(열린책들, 1994, 25쪽)과 John G Cawwelt,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10-11쪽 참조.

2) 카월티, 위의 책, 10-11쪽.

3) 『추월색』은 최찬식이 1912년 안동서관에서 발표한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전광용·송민호·백순재가 편한 『한국신소설전집』(을유문화사, 1968)을 텍스트로 하였다.

4) 『장한몽』은 조일제의 변안소설로 1913년 5월13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일신보에 상편이, 1915년 5월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중, 하편이 연재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신소설전집』9권을 텍스트로 하였다.

5) 『재생』은 동아일보에 1924.11.9에서 1925.7.28까지 연재된 이광수의 네 번째 장편이다. 여기서는 1996년에 우리문화사에서 나온 것을 텍스트로 하였다.

6) 『절레꽃』은 1937년 3월부터 10월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김달봉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이다. 여기에서는 『일본 신문소설전집』(김은샘, 1990)을 텍스트로 하였다.

이유는 이 작품이 가장 인기있고, 신소설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 보기 때문이다.⁷⁾ 변안 작품인 『장한몽』을 애정갈등형 대중소설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작품은 우리 나라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작품이고, 둘째는 변안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정갈등형 고소설의 도식성인 혼사장애구조를 따랐다는 점이고, 셋째는 우리 근대소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⁸⁾ 물론 변안 작품인 『장한몽』을 애정갈등형 신소설과 근대소설을 잇는 작품으로 보는 것은 이식 문학론적 관점이라는 혐의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작품을 대상 작품으로 삼았다.

2. 혼사장애구조의 변용 - 『추월색』과 『장한몽』

애정갈등형 고소설은 ‘남녀의 만남-시련-애정성취’라는 혼사장애구조를 띤다.⁹⁾ 여기서의 혼사장애란 혼사에 의한 시련이 애정 당사자의 내부적 갈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애정 당사자 외부에서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나 가문에 의해 혼사가 정해지는 시대에 개인의 애정 욕망은 이를 방해하는 효, 충, 신분질서 등과 같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 시련을 겪기는 하지만 애정 그

7) 『화세계』는 신소설의 중요한 모티브의 하나인 유학모티브가 나오지 않고, 『금강문』은 중혼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추월색』보다 훨씬 고소설적이다.

8) 최원식은 「장한몽과 위안의 문학」(『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82)에서 『장한몽』은 우리 독자가 경험한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이며, 이는 그후 우리 장편소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이 작품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품으로 『무정』, 『환희』, 『재생』, 『적도』 등을 예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9) 애정갈등형 고소설의 연구자들은 이 소설의 서사구조를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고소설의 서사구조는 영웅소설이건 가정소설이건 모두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애정갈등형 소설의 구조도 만남-시련-결합(애정성취)로 하였다. 다른 연구자들의 서사구조 단계도 다섯 단계든 일곱 단계든 모두 이 세 단계는 처음-중간-끝을 이루므로 세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혼사장애구조라고 명명하였다. 고소설 연구자들은 혼사장애를 애정갈등형 소설에만 한정해 쓰지 않고 고소설 전반에 나타난 혼사에 의한 시련을 모두 혼사장애라고 명칭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혼사장애라는 명칭을 애정갈등형 고소설의 서사구조에 한정해 쓰고자 한다.

자체가 흔들리거나 선택적 갈등에 빠지지 않는다. 애정 당사자에게 시련을 주는 외부적인 힘은 말 그대로 혼사를 방해하는 장애일 뿐이다. 왜냐하면 애정 자체가 중세적 권위에서 본능적 욕구를 해방시키려는 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근대적 개인의 자율적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개성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¹⁰⁾는 로웬탈의 말처럼 남녀의 애정문제를 다룬 소설의 등장은 자유로운 개인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다. 애정갈등형 고소설은 유교적 일체감 조성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려 하던 통치기반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중세의 쇠퇴”라는 사회사적 변천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그렇다면 중세질서가 무너지고 근대성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에 생산된 애정갈등형 신소설과 변안소설의 서사구조는 어떠한가.

신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애정은 『춘향전』처럼 남녀의 자연스런 애정욕망이 라기보다는 정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신소설의 애정갈등은 고소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고소설의 애정은 개인의 애정욕망에 의한 것이기에 남녀의 만남이 중요시된다. 남녀가 만나 첫 눈에 반하고 서로 사랑에 빠지지만, 신소설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제색을 겸비한 여주인공을 흠모하여 중간자를 통하거나 직접 통혼을 하여 정혼하므로 당사자들의 만남이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단지 혼사장애로 인한 여성의 수난과 애정성취만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신소설의 서사구조는 고소설의 혼사장애구조를 변형하여 만남이 빠진 시련-애정성취라는 구조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¹²⁾ 신소설이 굳이 고소설의 혼사장애 구조에서 개인의 애정욕망 대신 정혼자로서의 도리를 중요시하여 고소설의 시대적 저항성이 빠진 혼사장애구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10) 리오 로웬탈, 윤준 옮김, 『문학과 인간의 이미지』(종로서적, 1983), 98쪽.

11) 박태상, 『조선조 애정소설연구』(태학사, 1996), 45쪽.

12) 김충실은 「신소설에 나타난 혼사장애 양상에 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1981)에서 『추월색』을 비롯해 10편의 신소설에 나타난 혼사장애의 양상을 검토하여, 신소설이 고소설의 혼사장애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소설과 신소설의 상반된 주제가 서로 다른 서사구조에서 나온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러한 논의의 오류는 서영채의 「무정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93)에서도 나타난다.

신소설의 정혼은 『원앙도』처럼 남녀 주인공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부모들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흠모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정혼 당사자가 정혼 전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신소설 중 『추월색』이 대표적이다. “두 아해들도 혼인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의미는 알지 못하나 영창은 정임에게로 장가갈 줄로 생각하고, 정임은 영창에게로 시집갈 줄 알더라(18-9 쪽)”는 말처럼 일곱 살인 정임과 영창에게 애정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은 죽마고우인 아버지들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보고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애정욕망은 아니더라도 형제나 친구의 정이 개입된 정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정혼이란 개인의 욕망이 무시된 결혼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추월색』에서는 정혼을 당사자의 의견이 개입된 형태로 그럼으로써 조선시대의 정혼과는 다른 근대적 형태의 결혼제도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본질은 봉건이념인데도 불구하고 표면은 근대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장은 정임과 아버지 이시종의 갈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 것이 아니옵시다. 아버지께서 열녀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는 글 가져다 주셨지요. 나를 이왕 영창이와 결혼하라고, 지금 또 시집보내다 하시니, 부모가 한 자식을 두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영창이 좋적은 아니 못하나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는 죽어도 아니하겠읍니다(25 쪽).

요년, 요 못된 년, 그게 무슨 방정맞은 말이야! 요년, 헛 줄기를 끌어놓을라. 애가 영창이 예단을 받았단 말이나, 네가 영창와 초례를 지냈던 말이나? 내가 간대 없는 영창이 생각하고 시집 못갈 의리가 무엇이나, 아무리 어린 년인들(25쪽).

위와 같이 정임은 봉건적 결혼관을 가지고 있기에 “딸이 과부가 되었을지라도 개가(改嫁)라도 시킬 것이요, 정혼하였던 것을 거리껴서 딸의 일평생을 그릇하지 아니할” 아버지 이시종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구습’을 주장하는 정임과 ‘구습을 개혁할 사상이 있는(26쪽)’ 이시종의 세대갈등은 구결혼관을 유지하려는 부모와 새로운 결혼관을 주장하는 자식이 갈등하는 『치악산』과 같은 신소설과 다르다. 이 작품은 정혼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려는 정임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그려 봉건이념을 지지한다. 정임의 정절이 영창과의 재결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창의 집안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짐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위해 정혼정도는 껴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개화 이념이 비판된다.

그러나 이시종과 정임의 생각과 행동은 상반된다. 우선 이시종은 정혼하면 혼인한 것과 똑같다는 구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근대적이지만, 자식의 혼사는 부모가 결정한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봉건적이다. 정임 또한 마찬가지다. 그녀는 정혼=혼인이라는 봉건이념을 묵숨처럼 여기면서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덜 중요시한다. 게다가 그녀는 정혼자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가솔까지 감행한다. '가솔'은 정절을 지키려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미를 지닌다.¹³⁾ 이를 통해 볼 때 이시종과 정임은 표면적으로는 개화이념과 봉건이념이라는 상반된 이념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두 사람은 개화 이념과 봉건 이념이 착종된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정혼자로서의 도리라는 봉건이념을 지지하고 있지만, 유학 모티브, 가솔 모티브, 신식결혼, 신혼여행 등과 같은 근대적 장치가 긍정적으로 그려져 주제와 상반된 이념이 보이기도 한다.

『장한몽』은 변안소설이기는 하지만, 원작 『금색야차』와는 다르게 애정갈등형 고소설의 혼사장애구조를 계승, 변형하여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권선징악에 익숙해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애정욕망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낯설다. 따라서 우리 독자에게 익숙한 혼사장애와 권선징악 등의 서사구조를 들여와 원작의 삼각갈등을 고소설의 혼사장애로 변화시킨다.¹⁴⁾

삼각관계를 통해 개인의 욕망을 인정하던 이 작품은 혼사장애로 변하면서 개인의 욕망을 부정한다. 신분상승 욕망과 정혼자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갈등

13) '가솔'이란 모티브는 『추월색』 이외의 다른 신소설에도 자주 나오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다른 작품의 '가솔'은 주로 고부갈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월색』의 가솔처럼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다.

14) 서영채는 『무정』을 논하는 글에서 『장한몽』의 서사구조가 애정 삼각갈등에서 혼사장애로 복귀한다는 것을 밝혔다.

하는 삼각관계는 순애가 다이아 반지와 부르조아 계급으로 신분상승하고 싶은 물질적 욕망을 선택함으로써 해소된다.

순애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스스로 집착하는 바이라. 그런 고로 친가의 재산을 팔려 근근히 내외가 살아가고자 함은 결코 심순애의 소망이 아니라. 그 여자는 일찍이 미친한 몸으로 귀인의 부인이 된 일을 보았으며, 또는 재산가로 아내의 추한 얼굴을 싫어하여 돌아보지 아니하고 꽃과 같이 아름다운 소실을 구하여 친일(親昵)하는 모양도 보았는지라, 남자가 채주와 학식만 있으면 임의로 같아여, 여자는 자색으로 능히 부귀를 얻음이라 깊이 믿었으며, 또는 아름다운 용모로하여 용이히 부귀를 겸득하는 여자의 약간을 보았으며 자기와 같이 아름다운 여자는 보지 못하였던 생각도 한다(25쪽).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순애의 물질적 욕망 앞에 정혼자로서의 도리 운운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순애와 김중배의 결합은 행복한 결혼생활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렇지 않다. 김중배와 결혼하자마자 순애는 갑자기 정혼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을 후회하고, 김중배를 자신과 수일의 결합을 방해한 적대자로 대한다. 즉 물질적 욕망이 강하던 순애가 정혼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려는 열녀로 돌변한 것이다. 따라서 순애에게 있어 김중배의 의미도 달라진다. 결혼 전 김중배는 자신에게 부귀를 가져다 줄 구원자였는데 결혼하자마자 그는 수일과의 혼사를 방해하는 혼사장애자가 된 것이다. 특별한 계기 없이 순애가 개인의 욕망보다 정절이라는 봉건적 이념을 중요시하는 변화는 개연성이 없다. 『금색야차』의 미야는 도미야마 다다쓰구를 선택하고 간이치를 배반한 것을 후회하지만, 아내로서의 도리는 다하며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간이치의 용서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장한몽』의 순애는 결혼 5년 동안 수일과의 재결합을 위해 정절을 지키다 남편 김중배에게 접탈을 당하고, 자살을 기도한다. 그때 마침 수일의 친구 백난관의 도움으로 순애는 살아가고, 바로 집을 나와 김중배와 이혼하고 수일에게 용서를 빌며 재결합을 시도한다. 그러면 왜 작가는 이야기의 일관성까지 깨며 삼각관계를 혼사장애 구조로 무리하게 변화시켰는가? 이는 순애와 수일을 다시 결합시키기 위해서이다. 두 사람의 결합을 위해 작가는 물질에의 욕망과 의리(정혼자에 대한 도리 즉,

烈) 사이의 애정갈등을 선악 이분법에 근거해 의리=선, 물질에의 욕망=악으로 나눈다. 물질에의 욕망을 악으로 비판하기 위해 물질적 욕망=성적 타락이라는 동식을 만들고, ‘겉탈’ 모티브를 차용한다. 겉탈이란 고소설에서부터 여성의 시련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 많이 등장하지만, 정절을 중요시하는 시대에는 단 한 번도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다. 신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장한몽』에서 처음으로 부정적 인물인 김중배의 악함을 강조하고 그를 비판하기 위해 겉탈이 행해진다는 점도 흥미롭다.

반면에 순애와 수일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에서 도덕적 인간으로 재생하고, 애정이 성취된다. 수일은 순애에게 버림 받은 후 의리보다는 돈의 논리에 지배되는 현실에 복수하기 위해 고리대금업이라는 가장 타락한 형태의 돈의 논리를 선택한다. 수일은 친구나 지인에 대한 도리나 의리를 돌보지 않는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그는 김정연이나 김중배처럼 악한 인물로 비판받지 않는다. 이는 그가 성적 순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 타락은 『장한몽』뿐만 아니라 이후 작품에서도 물질적 욕망의 부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또한 선으로 지지되는 이념이 봉건이념이든 혹은 자본주의 이념이든 성적 순결성은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절이념은 봉건시대뿐만 아니라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가족 제도하에 재구성된 이념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그는 정절을 지키는 기생 육향의 의리에 감동받고 다시 봉건적 도덕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재생된다.

순애가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후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벗어나 정혼자에 대한 의리로 정절을 지키고, 궤절 후 자살을 기도하는 등 봉건적 도덕 중심의 가치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장한몽』은 일본소설에 우리 소설의 관습인 혼사장애구조를 들여와 물질에의 욕망을 부정하고, 정혼자로서의 도리와 같은 봉건적 도덕을 지지한다. 하지만 자본적 질서에 침윤되어 가는 봉건적 도덕의 모습을 보여주는 『금색야차』를 혼사장애로 복귀시키려다보니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김중배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성적 방종과 겉탈은 작품 중간중간에 보이는 순애에 대한 애정과 모순된다. 의리로 보증을 섰다가 고리대금업자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의 예에서도 당대는 의리보다는 돈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임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 더욱이 애정성취가 수일이 고리대금업으로 부자가 된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춘향이가 암행어사가 된 주인공에 의해 시련을 극복하고 신분상승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돈의 논리 앞에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사할 수밖에 없었던 옥향과 최원보의 애정갈등이 수일의 돈에 의해 해결되는 것을 볼 때 이 작품은 고소설의 혼사장애를 통해 물질적 욕망을 부정하고 있지만, 유교 도덕을 지킨 사람들의 애정 성취와 의리 회복이 돈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봉건이념과 자본주의적 이념이 착종된 형태의 작품이다.

신소설과 변안소설 『장한몽』은 똑같이 근대이념을 거부하고 봉건이념을 지지하기 위해 애정갈등형 고소설의 혼사장애 구조를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 고소설의 혼사장애구조는 봉건이념에 대한 비판이라는 의미를 갖는 서사구조인데 『추월색』과 『장한몽』은 혼사장애구조에서 남녀의 자유로운 만남이라는 애정욕망을 빼버리고, 정혼을 지키려는 주인공들의 시련과 성취만을 그림으로써 봉건이념을 지지하고 있다.

신소설의 경우 정혼자로서의 도리를 지키려는 봉건 이념을 방해하는 근대 이념은 외부적인 힘으로만 존재하는 시련이다. 하지만 『장한몽』에 오면 봉건 이념은 이미 선택적 갈등으로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힘으로 애정이 흔들리거나 선택적 갈등을 하게 할 정도로 강대한 개인의 욕망이 된 것이다. 불과 1년 사이에 발표된 작품인데 이렇게 다른 구조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하나는 우리 나라 작품이고 하나는 변안작이기에 두 작품이 다른 서사구조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추월색』보다 『장한몽』이 더욱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보면 『장한몽』이 당대인의 감정을 더 잘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한몽』의 애정 삼각관계도 우리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삼각관계라는 갈등유형은 봉건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들이 붕괴되어 가치관의 다변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이념들이 서로 충돌하는 현실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우리 사회도 봉건이념이 쇠퇴하고 새로운 근대이념이 새롭게 부상하여 두 이념이 갈등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조혼 폐지, 과부 재가 허용,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결혼 등의 신결

혼관이 이상적인 결혼관으로 생각되던 시기이다. “개인은 지고의 인식자로 위치지어지면서, 자연의 번덕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전통의 권위로부터의 자유 등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 합리성의 추진자로 부각”¹⁵⁾되는 ‘근대적 인간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 작품은 정혼자로서의 도리라는 ‘전통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주장되는 때에 ‘불경이부’라는 봉건이념을 지지하기 위해 혼사장애 구조를 차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돈의 논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가는 봉건이념을 보는 것은 당대인에게는 근대화된 일본에 감점되는 우리 나라의 현실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의 독립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소박한 민중들의 마음 또는 돈의 논리에 무력한 자신들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당대인의 정서를 반영하여 삼각관계가 혼사장애로 회복되고, 돈의 논리에 봉건이념의 도덕성이 승리한다. 하지만 이는 당대인의 소박한 소망일 뿐 결국 당대는 돈의 논리나 근대화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임을 보여줄 뿐이다.

3. 애정의 삼각갈등구조 - 『재생』

1920년대의 한국사회는 1920년 전후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자유연애’와 자본주의적 질서가 잔여적인 봉건이념과 충돌하는 시기이다.

당대에 애정문제는 우리 사회 특히 청년 남녀간에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였다. 잡지나 신문 등에 자유연애에 대한 기획이나 논쟁이 많은 것을 보아도 자유연애는 당대 최고의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애정관의 중심이 바로 자유연애인 것이다. 자유연애는 신분 혹은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남녀의 성적, 정서적 결합을 의미하며, 개인의 자유와 자아실현이라는 점에서 봉건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식으로 대두되었다. “이 구석에서는 「이상적 신성」한 사랑이니 연애의 자유-성적 해방이니 하는 하이칼라 수작을 연방하면은, 저 구석에서는 집안망할 년놈들이라고 쌍집행이를 들고 나와서 야단을 친다”¹⁶⁾

15) 장성만, 「개항기 한국 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세계의 문학』, 1993 가을호, 259쪽.

16) 염상섭, “제가의 연애관”이라는 조선문단의 특집에 실린 「감상과 기대」, 1925.7.

는 말처럼 1920년대는 근대적 애정관과 봉건적 애정관이 갈등하는 시기이다.

1920년대 한국사회는 중세적 봉건사회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이행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돈’이 현실을 규율하는 이념으로 부각한다. 이에 당대는 친구애정관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물질에의 욕망과 애정욕망의 갈등이 대두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사랑이나 돈이나 계열의 작품들이다.

그뿐만 아니다. 물질적 『캐피탈리즘』은 성생활에도 그 폭위를 떨치는 것이다. 빈자의 연애가 금력에 빼앗기는 예는 로맨틱한 옛이야기가 아니다. 그러한 것은 원래 연애연애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본질이든 아니든 사실이 그러한 것이야 어지하다. 그리하여 빈자는 일생애에 성생활 내지 연애생활을 희생하는 일편에 부귀의 특권계급은 일부다처주의를 실행한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금일의 종교는 일부일처를 신봉하면서 그 반대의 결과를 낳는 현대조직을 지지옹호함으로 여기에도 현대의 종교를 부인할 일이유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즉 현대의 연애생활은 금전으로 매매되는 것이다.¹⁷⁾

위의 글처럼 자본주의 시기에 애정관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질 문제이므로, 물질적 욕망보다 애정욕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애정욕망보다 오히려 물질적 욕망이 강력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획득적 신분사회에서 특히나 여성에게 결혼은 신분상승의 수단이 되어 여성의 미모와 순결을 남성의 재산과 매매하는 금전결혼이 성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절대적인 이념이 사라지자 다양한 이념의 충돌은 외적인 시련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갈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구조화 한 형식이 애정의 삼각갈등구조이다.

애정의 삼각갈등은 이미 『장한몽』에서 다루어졌던 구조이나, 혼사장애 구조로 복귀함으로써 근대소설의 서사구조로서 정립되지 못했다. 즉 이 작품은 근대사회에서 봉건가치체계가 특정그룹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이념이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봉건가치체계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광수는 『무정』에서 애정의 삼각갈등구조를 통해 1910년대의 사회는 봉건가치체계가 특정그룹의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이념의 하나가 되어, 다른 근대이념들과 충돌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17) 염상섭, 위의 글.

정혼자로서의 도리가 지지되기보다는 정혼자로서의 도리와 개인의 욕망(애정 욕망과 신분상승욕망)이 개인의 내적 갈등으로 형상화되어 애정갈등은 삼각관계로 정착된다. 이 점이 『무정』을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이라 불릴 수 있게 한 점의 하나이다.

『무정』에서 정혼자로서의 도리와 애정욕망의 삼각갈등을 그린 이광수는 『재생』에서 개인의 욕망이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를 삼각갈등으로 보여준다. 개인의 욕망이 부정적인 욕망임을 드러내기 위해 공간과 인물을 선악 이분법으로 나눈다. 우선 공간을 개인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나눈다. 기숙사는 P부인과 인숙처럼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고 교육운동에 헌신하는 인물들이 있는 곳인데 반해 기숙사 밖은 “사감 선생의 절제도 받지 아니하고 기도회 시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곳”으로 백윤희, 명선주, 봉구 등과 같이 개인의 욕망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백윤희, 명선주와 같이 돈과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인물들은 『장한몽』의 김중배, 『무정』의 배학감처럼 악한 인물이다. 김중배와 배학감의 부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쓰였던 겁탈 모티브는 백윤희보다는 순영의 물질에의 욕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¹⁸⁾ 그녀는 백윤희에게 겁탈을 당하면서도 “이 기회를 놓치면 일생의 행복이 아주 영영 지나가 버”릴까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 겁탈이 정절을 지키려는 여성 주인공의 시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작품에서의 겁탈은 물질에의 욕망(돈과 성적 쾌락)이 정절이데올로기보다 강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순영이 애정 욕망 때문에 낙태를 하는 행동은 어머니로서의 역할까지 거부하는 모습이어서 더욱 부정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은 겁탈과 낙태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물질에의 욕망을 비판하고 있다. 자유연애를 통한 일부일처제를 이상적 가족형태로 보았던 당시에는 양치현모를 여성의 역할로 규정하였고,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물질적 욕망 때문에 순결을 매매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까지 방기하는

18) 김중배와 배학감은 순애와 영채의 순결을 빼앗는 인물들로, 이들의 겁탈 행위는 여성 주인공들의 정절관을 보여주는 역할과 동시에 자신들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순영의 행동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겁탈과 낙태를 여성의 부정성으로 드러내는 작가의 의도는 여성의 미덕으로 일컬어지는 정절과 어머니로서의 도리가 자본주의의 물질 중심 가치관에 의해 훼손되고 있음을 비판하고자 하는 데 있다.

봉구는 애정욕망의 부정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봉구와 순영은 한때는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순영이 민족보다는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서 봉구 역시 순영에 대한 애정 욕망 때문에 비두업자가 되어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 이에 그도 살인자로 몰려 사형 언도까지 받는 벌을 받게 되지만, 그는 순영에 비해 순결한 인물이기에 즉, 주인집 딸 경주의 구애에도 순영에 대한 애정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재생하게 된다. 그는 “한국의 모든 백성이다 안락을 누릴 때까지 내 몸에 안락이 없으리라(401쪽)”며 ‘셀프 새크리파이스(저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

결국 이 작품에서는 물질적 욕망과 애정욕망이 비판되고 희생적 사랑이 지지된다. 여기에서 희생적 사랑이란 개인의 욕망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다. 농촌계몽, 교육에의 헌신,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을 위한 헌신 등인 것이다. 하지만 재생한 봉구가 개인의 애정욕망에서 벗어나 농민을 넘처럼 사랑하겠다고 선택한 농촌계몽운동이 기계처럼 냉냉하고 쓸쓸하게 묘사되고, 또한 “만일 순영과 같이 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꿈일러라. 다시 오지 못할 꿈일러라”하며 순영을 그리워 하는 모습은 희생적 삶은 쓸쓸한 일처럼 보이고, 농촌계몽운동도 애정욕망과 함께 이루어져야 행복할 것처럼 보인다. 개인의 욕망을 이기적 욕망이라고 억압하고 희생적 사랑을 주장하지만, 은연 중에 희생적 사랑을 불행한 삶처럼 그려내는 것이다.

『제생』은 개인적 욕망(돈과 애정에 대한 욕망)을 비판하고,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국가 혹은 민족공동체 이념은 개개인들의 욕망의 충돌을 조율하고 집단으로 묶어낼 수 있는 기제로 등장한 근대적 이념이다. 이는 시민혁명을 통해 신분해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급간의 대립이나 개인의 대립을 무마시키기 위해 나온 이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민족주의는 일제에 강점되어가는 시기에 유입되어 형성된 것이

기에 서구의 민족주의와 성격이 달랐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개인보다는 민족이 우선한다는 관념이 강해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이기주의라고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민족애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의 영달이나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헌신이나는 새로운 삼각갈등으로 등장하게 된다. 『재생』은 이러한 민족애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철저하게 개인의 욕망을 악으로 설정하고 개인의 욕망보다는 개인의 희생을 지지한다. 하지만 애정과 물질에 대한 당대인의 내밀한 욕망이 무의식 중에 반영되어 작가의 의도와 모순된 이념이 잠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무정』에서 개인의 욕망을 긍정했던 작가는 『재생』에서 개인의 욕망을 부정한다. 『무정』과 『재생』이 발표 당시 인기를 누렸다는 점에서 볼 때 3.1운동 이전에는 개인의 욕망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음에 반해 3.1운동 이후 개인의 욕망은 개인의 안락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인식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27년에 발표된 『승방비곡』(조선일보, 1927.5.10-9.11)에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20년대에 발표된 두 작품은 모두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음을 통해 볼 때 삼일 운동의 실패 이후 당대인들은 독립을 위해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민족주의든 사회주의자든 모두에게 있었고 이에 못지 않게 민족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4. 삼각갈등의 중첩구조

『재생』과 『승방비곡』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희생과 개인의 욕망 사이의 갈등을 그렸다면, 30년대 『철레꽃』에는 20년대 작품들에서 보였던 민족공동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개인만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애정욕망과 물질적 욕망의 삼각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몰락한 봉건세력인 정순과 민수가 신흥 부르조아인 조만호의 집과 연결되면서 유발되는 애정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무대는 조만호집이나 호텔, 백화점 등과 같이 자본주의의 화려한 소비 공간들이 주무대이며

이곳에서 정순과 민수가 토지경매사건과 애정갈등이라는 시련을 겪는 것을 볼 때, 당대 사회는 자본주의적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수와 정순이 조만호네와 관계를 맺으면서 겪는 시련은 몰락한 봉건세력이 자본주의적 질서에 편입되면서 겪는 시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토지경매 사건은 두 사람에게 세상은 돈의 논리에 지배되는 현실임을 인식하게 하고, 애정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정순과 민수 사이에 조만호, 경애, 경구 등이 개입되면서 민수-정순-조만호, 정순-민수-경애(-영환), 민수-정순-경구(-운회) 등의 애정갈등이 잠재된다. 경애 어머니가 죽으면서 세 개의 애정갈등은 표면화된다. 이 애정갈등들은 최근호-옥란-조만호의 애정갈등에 영향을 받는다. 최근호-옥란-조만호의 애정갈등들은 민수-정순-조만호의 애정갈등과 정순-민수-경애의 애정갈등들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애정갈등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호-옥란-조만호의 애정갈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조만호-옥란-최근호의 애정갈등을 통해 애정욕망보다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들을 비판한다. 물질에의 욕망 때문에 최근호를 버린 옥란, 부하 직원과 아들의 애정욕망을 짓밟고 자신의 성욕을 추구하는 조만호 등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다른 인물들에 의해 속고 웃음거리가 된다. 이 애정갈등은 옥란이 조만호를 선택하면서, 민수-정순-조만호의 애정갈등과 관련을 갖게 된다. 민수-정순-조만호의 애정갈등은 정순이 조만호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생기나, 경애 어머니가 살아있어서 표면화되지 않는다. 경애 어머니가 죽자, 조만호는 정순을 아내로 얻으려 한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민수와 정순이 경애와 경구와 서로 사랑한다고 오해하고 있을 때이다. 정순과 민수는 조만호가 정순에게 욕심을 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최근호를 통해 정순이 조만호와 깊은 관계라는 오해를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 애정갈등이 있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 갈등은 정순이 애정 대신 돈을 선택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여 민수-정순-조만호의 애정갈등을 표면화시키고, 정순-민수-경애, 민수-정순-경구 등의 애정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순에 대한 오해는 민수와 경애를 결합시킨다. 즉 민수가 애정 대신 돈을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신분상승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옥란의 복수는 민수-

정순-조만호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정순의 순결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정순과 민수는 정순-민수-경애, 민수-정순-경구 등의 애정갈등에서 부자의 구애라는 물질적 욕망에 흔들리지도 않아 고소설의 혼사장애처럼 보인다. 이 애정 갈등은 민수와 정순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들은 사랑이나 인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의 위력을 잘 알고 있고 그들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지속적이지만, 상대방이 부자와 결혼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민수라는 청년은 오빠가 아니요 자기와 약혼한 사람이라고 부르짖으면 그만이다. 단 한마다로, 오직 한 마디면 자기와 민수 사이를 위협하는 이 무서운 사실은 곧 해소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정순은 경구와 나란히 걸으면서도 한 가지 질문이 자기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민수의 행복을 깨뜨릴 권리가 있느냐? 민수가 너와 결혼하는 것보다 경애와 혼인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네가 판단할 수 있느냐?’

정순은 갑자기 자기 가슴 속에서 머리를 치켜드는 이 괴로운 소리에 그는 또다시 얼굴빛이 변하여졌다.(249쪽)

아이들이 돌아간 뒤 민수는 또 한 번 정순의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한 장씩 한 장씩 되풀이하여 가며 읽어 보았다.

“나의 맘은 악몽을 보는 것과 같이 혼란하다! 호호, 바로 금색야차(金色夜叉)의 미야(小宮)식이군(251쪽)”

위의 예문과 같이 민수와 정순이가 서로 상대방이 부자와 결혼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물질적 욕망 앞에서 애정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자신의 욕망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그들의 내면에는 물질에의 욕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러한 욕망이 ‘희생’으로 가리워지면서 즉, 민수와 정순이 서로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애정욕망을 희생하는 것으로 그림으로써 그들의 물질에의 욕망은 은폐된다. 게다가 두 사람은 조만호와 옥환 등과 비교되어 더욱 윤리적인 인물처럼 보인다. 정순과 민수의 애정이 조만호, 경구, 경애 등에 의해 성취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와 정순이가 긍정적인 인물인 경구와 경애¹⁹⁾와 결합

19) 경구와 경애는 부자집 자식이고 동경 유학을 한 인텔리이고 또한 민수와 정순을

함으로써 그들의 애정 실패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절레꽃』은 자본주의 질서가 전면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1930년대 후반 작품답게 여러 애정갈등을 중첩시킴으로써 물질적 욕망을 비판하고 애정욕망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물질에의 욕망을 긍정한다고 볼 수 있다. 돈이 새로운 신분질서를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들은 부자에 대한 선망을 가지는 동시에 부자가 자신들보다 부도덕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중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작품이 『절레꽃』인 것이다. 부자에 대한 선망은 민수와 경애의 결합으로 충족되고, 민수와 정순의 물질적 욕망을 희생적 사랑으로 은폐시키고 조만호의 물질욕망과 대비시킴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본주의 질서가 확립되는 시기에 서구에서 『패밀리』처럼 결혼이 신분상승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이 형성된 고소설의 갈등구조인 혼사장애구조가 신소설, 근대소설에 오면서 어떻게 변모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시대의 애정갈등형 소설이 당대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은 봉건적 질서가 지배적일 때는 만남-시련-애정성취의 서사구조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봉건적 질서에서 자본주의적 질서로 이행되는 과도기에는 혼사장애구조를 변형시키게 된다. 고소설의 혼사장애구조는 봉건이념에 대한 비판이라는 의미를 갖는 서사구조인데 『추월색』과 『장한몽』은 혼사장애구조에서 남녀의 자유로운 만남이라는 애정욕망을 배버리고 그 자리에 정혼자에 대한 도리를 위치시킴으로써 오히려 봉건이념을 지지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아버지 조만호가 신흥 부로조아의 자식들과 결혼시키려 하지만, 가난하고 고결한 민수와 정순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민수와 정순의 애정 성취를 방해하는 인물들이지만, 부정적이지 않다.

주제를 드러냈다. 원래 신소설은 봉건적 이념을 부정하고 근대를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발생한 장르였지만, 1910년 이후 근대이념은 친일과 직결되면서 시대적 의미를 잃고, 보수화됨을 알 수 있었다.

물질에의 욕망과 애정욕망이라는 근대적 욕망이 애정의 삼각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봉건이념이 자유연애와 자본주의 질서와 갈등하는 1920,30년대 현실의 반영이다. 애정의 삼각관계는 일본 변안소설인 『장한몽』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작품은 삼각갈등을 혼사장애구조로 변형시킨다. 이 작품이 우리 나라에 소개된 1913년은 아직 돈이나 사랑이냐는 근대적 갈등이 형성될 만큼 자본주의 질서가 전면화되지 않은 시기 즉, 자본주의의 맹아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봉건이념과 근대이념이 착종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반영으로 『장한몽』은 애정삼각관계와 혼사장애구조가 혼용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광수는 『무정』에서 정혼자로서의 도리와 개인의 욕망 사이의 삼각갈등구조를 통해 봉건가치체계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인 성격에서 특정그룹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이념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었다. 정혼자로서의 도리와 개인적 욕망과의 갈등이 이제 개인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갈등이 되었다는 것이다. 『무정』에서 개인의 욕망을 긍정했던 그는 『재생』에서 애정의 삼각관계를 통해 애정욕망과 물질적 욕망을 비롯한 개인적 욕망을 부정하고 민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3.1운동 이전에는 개인의 욕망이 근대적 자아각성이라는 의미로 긍정되다가 3.1운동이 실패한 이후에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강조되는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30년대 『찔레꽃』에 와서는 20년대 작품에서 보였던 민족공동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개인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자본주의 질서가 전면화되는 시기인 1930년대 후반 작품답게 여러 애정갈등을 중첩시킴으로써 물질적 욕망과 애정욕망 모두를 긍정하였다. 인물 속에 내재된 신분상승욕망은 전면화된 순수하고 희생적 사랑으로 인해 은폐되고, 이로써 가난한 인물의 신분상승은 인물의 고결성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결혼이 신분상승을 가져오길 바라는 대중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작품이며, 나아가 당대가 결혼

이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임을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은 상업성을 위해 관습적인 문학형식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시대와 이념에 따라 애정갈등형 고소설의 관습을 변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관습적 문학형식을 반복한 작품보다 이를 변용한 작품이 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의 변화를 가장 빨리 파악하여 그것을 이야기하는 소설임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강영희. 「일제강점기 신파양식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 권선아. 「1930년대 대중소설의 양상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4.
- 김강호. 「1930년대 통속소설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4.
- 김동인. 『춘원연구』, 삼중당, 1968.
- 김영찬. 「1930년대 후반 통속소설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4.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3, 한길사, 1986.
- 『한국근대문예비평사 연구』, 일지사, 1976.
- 김일렬. 『한국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 「서사문학에 나타난 Eroticism의 전개상」, 『어문학 28집』, 한국어문학회, 1973.
- 김종호. 「1930년대 통속소설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95.
- 김충실. 「신소설에 나타난 혼사장애 양상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0.
-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 박태상. 『조선조애정소설연구』, 태학사, 1996.
- 배기정. 「『찔레꽃』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국어교육연구 26집』, 1994.
- 서영채. 「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4』, 창작과비평사, 1993.

- 『무정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2.
- 안창수. 『『펠레꽃』에 나타난 삶의 양상과 그 한계』, 『영남어문학 12』, 1985.
- 오미남. 『1930년대 후반기 통속소설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94.
- 이미향. 『일제 강점기 애정갈등형 대중소설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9.
- 임성래. 『조선후기 대중소설』, 태학사, 1995.
- 임 화. 『문학의 논리』, 서음출판사, 1989.
- 장성만. 『개항기 한국 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세계의 문학』, 1993, 가을호.
- 정중대. 『염정소설구조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4.
- 정한숙. 『현대한국소설론』, 고려대출판부, 1977.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 지식산업사, 1994.
- 『신소설의 문화사적 성격』, 한국문화연구소, 1983.
- 한명환. 『1930년대 신문소설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5.
- 대중문학연구회 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9.
- 그람시, 안토니오. 조형준 역, 『그람시와 함께 읽는 문화』, 새문결, 1992.
- 기돈스, 앤소니 저. 배은경 · 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람, 에로티시즘』, 새문결, 1997.
- 로웬달, 리오. 윤준 옮김, 『문학과 인간의 이미지』, 종로서적, 1983.
- 살스비, 재클린.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 스토리, 존. 박모 역, 『문화 연구와 문화 이론』, 현실문화연구, 1994.
- 에코, 움베르토. 김운찬 역, 『대중의 수퍼맨』, 열린책들, 1994.
- Hall, John 저. 최상규 역, 『문학사회학』, 혜진서관, 1987.
- Felski, Rita. 『The Gender of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John G. Cawelti.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structure of troubled marriage' in Korean novels

Lee Mi-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nges of the 'structure of troubled marriage' from the old novels or the initial popular fictions characterized by conflicting love affairs - down to new and modern novels, and thereby, discuss how the novels have understood their setting or the society of the time.

The popular novels characterized by conflicting love featured an epic structure of encounter - trial - achievement of love when the feudal order ruled the society. However, during the transient period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the 'structure of troubled marriage' would be subject to change. The 'structure of troubled marriage' of old novels may well be an epic structure implying the criticism of feudalism, but in 'Autumn Moon Color' and 'Long Lamented Dream', the structure would be rather deprived of the 'free love' or natural desire of love only to support the feudal ideology of women's loyalty to their designated fiances. Originally, the new novels started with refusal of the feudalism and pursuit of modernity, but after 1910 the modern ideology would be associated with pro-Japanism to lose its historic mission only to be conservative.

The 'triangle structure of love' developed from such modern desires as mammonism and love reflected the reality of 1920's and 1930's when the feudalism conflicted with free love and capitalism. The triangle structure of love had appeared earlier in 'Long Lamented Dream' adapted from a

Japanese novel. Nevertheless, the novel had rather changed the triangle structure of love into the 'structure of troubled marriage'. It was written in 1913 when capitalism was not developed enough to create the modern conflict between money and love. In short, feudalism and modern ideology was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fter all, the 'Long Lamented Dream' featured both 'triangle love' and 'troubled marriage' structures.

Lee Kwang-Soo presented in his work 'Emotionless' featuring a 'triangle conflict structure' of a fiancée conflicting between loyalty and personal desire that the feudal value system had changed from the universal value system to an ideology supported by a certain group of the society. He championed that fiancée's conflict between loyalty and personal desire could be very personal, not being caused from the society. Lee Kwang-Soo who affirmed a personal desire against the social morality in 'Emotionless' would deny such personal desires as love and money in his another novel 'Revival' featuring a 'triangle love structure' also, and instead, would suggest a love devoted to people or community. Thus, we can estimate that the personal desires were affirmed as modern self-awareness befor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but the loyalty to community rather than pursuit of personal desires would be emphasized after the failure of the movement.

Later, 'Wild Rose' written in 1930's showed no sense of 'people's community' or slogan of 1920's but individuals. The novel overlaid various love conflicts only to affirm mammonism and desire of love. The desire of a social success harbored by the character was concealed by a transformed pure and devoted love, and thereby, the desire of a social success harbored by the poor character was acknowledged as compensation for the noble-mindedness. Thus, the work satisfied people's desire of social success through marriage, and furthermore, reflected the reality of the time

or a capitalistic society that marriage could be a means of social and financial success.

As discussed, the popular novels characterized by conflicting love repeated the customary style of literature for commercialism, but they might adapt the custom of old novels' conflicting love structure at times. It is also conceived that the works adapting the customary style of literature rather than repeating it were more quick to catch the changing social ideology or system to fictionalize it.